



사회적 불행과 개인적 불행에 대한 사회학적 투시의 기록

K는 날마다 불안하다. 누군가 가혹하게 K의 집 문을 두드려댄다. K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 너머의 목소리가 황사먼지처럼 문 틈새로 들려온다. 멸망이 멀지 않았습니니다. K는 두 손으로 귀를 움켜진다. 텔레비전을 튼다. 텔레비전에서는 빈곤의 세습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 빈곤의 세습. 냉장고 안 우유는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나 있다. K는 우유를 마신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우유에서 부패의 기미, 부패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무감각한 식도. 무감각한 사회제도들, 제도의 발명자들. K는 수도꼭지를 튼다.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흘러나온다. 5리터 가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물 빛깔이 투명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수도세 고지서를 어디에 두었더라. K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5리터 가량의 물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K는 수도세가 두 달째 밀렸다는 것을 생각한다. 5리터의 물을 받아 욕실 바닥을 닦는 데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K는 피곤하다. K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K는 만성피로증후군의 보균자인 것

이다. 그러나 K는 격리, 수용되지는 않는다.

전화벨이 울린다. 망설이다 수화기를 집어든다. 아버지다. 8년여 동안 중동의 사막에서 유배의 삶을 산 그는 트럭을 몰고 있다. 지쳤다. 그는 지쳤다,고 고백한다. K는 머릿속으로 수면제 같은 것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반밖에 살지 못한 K는 자신이 그보다 더 지쳤을지도 모른다는 항변을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지쳤다는 아버지의 고백에 대해. 그의 한 아들은 서울 외곽의 공단지대에서 노동자로 살고 있다. 그의 아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친구로 사귀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또 다른 아들은 공부를 한다. 공부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9년째 대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의무는 지지 않으려 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데 분노한다. 분노가 사막의 열기처럼 그의 내부를 뜨겁게 휩쓸고 있다는 것을 K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아들인 K는 방송국의 AD로 있다. 프로그램의 빈번한 폐지와 신설만큼이나 K는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한다. 반복, 반복의 지난함.

《세제의 비참》. K는 번역투의 건조한 제목이 미치도록 마음에 든다.

피에르 부르디외와 22명의 사회학자들이 3년 작업을 통해 공개한 사회적 불행과 개인적 불행에 대한 사회학적 투시의 기록.

K는 《세제의 비참》을 펼친다. 지친 K는 아무 장이나 펼친다. 서른여섯의 실업상태에 있는 한 여배우의 다분히 연극적인 고백을 건조하게 읽어 내려간다. 여배우는 연극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대와 강요를 믿으며 연극의 왕도에 들어선다. 여배우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객이 되는 것은 죽고 싶을 만큼 참을 수 없는 고문이다. '질문자'가 여배우에게 질문한다. "지금이 과도기이군요." 여배우가 발작적으로 소리치른다. "과도기가 7년 동안이나!" K는 과도기에 대해 생각한다. K의 과도기는 8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가 중동의 사막에서 보낸 세월도 8년이였다.

K는 《세제의 비참》을 덮는다. 담배를 한 대 피운다. 담배



를 피우며 《세계의 비참》을 또다시 펼친다. “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은 실업자는 아니잖아요.” 청년실업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한마디의 항변이 들려온다. 언젠가 K는, 끝나지 않을 공부에 매달려 있는 형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항변한 적이 있다고 기억한다. 어쩌면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K는 신경질적으로 책장을 넘긴다. “제 소원은 오직 하나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였어.” 교외의 조그만 별장 여주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분노의 근원은 어디인가.

분노의 근원 저 너머, 불행의 근원은 어디인가.

《세계의 비참》에는 만성적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개인의 불행을 사회적 조건에서 찾으려는 ‘질문자’들이 있다. ‘질문자’들의 질문은 ‘응답자’의 불행한 삶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과정이다. ‘질문자’들은 ‘응답자’들의 불행을 이해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될 만한 손짓이나 몸짓, 표정, 말투까지도 성실하게 기록해 놓는다. 막연한 침묵까지도. 기록을 통해 ‘응답자’들의 불행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사회구조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가와 정치가들과 관리들의 무지와 직무유기를 비판한다.

“통탄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되고, 혐오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K는 떠올린다. 불안과 불행이 이해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런데도 대체 불안과 불행이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되어서 어찌자는 것인가, 도대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고통의 책임을 사회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게 해주고, 또한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형태를 포함하여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행들의 출처, 즉 집단적으로 은폐되어 온 사회적 출처를 널리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K는 날마다 불안하다. K는 불안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빈곤이 K의 잘못이 아니었듯이, 빈곤이 K의 아버지

의 잘못이 아니었듯이. 불안은 사회의 모순된 제도들과 물이해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K는 《세계의 비참》을 덮는다. 무죄. K는 자신의 무능과 빈곤과 무기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K는 이제 잠을 청할 것이다. 눕자마자 잠든다고 해도 4시간밖에 잠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잠은, 언제나 모자라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1시간 동안이나 지하철을 타고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해야 한다.

K는 눈을 감는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K는 몸을 일으킨다. 문을 연다. 익숙하고도 낯선 남자가 K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다. K는 남자의 이마에 잔잔하게 번져 있는 물결무늬를 꿈틀 꿈틀 바라본다. 부르디외다. 불행의 예언자, 좌파 중의 좌파 지식인. 실천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그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니. 2년여 전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았었는가.

부르디외는 K에게, 그가 ‘응답자’로 선택되었음을 통보해 온다.

부르디외 : 당신은 서른다섯 살이다. 결혼적령기를 지났는데...당신은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K : (침묵)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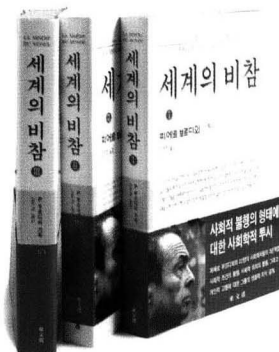
부르디외 :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K : (생각에 잠겼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부르디외 :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K : 나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내가 가진 재산은 원룸 전세금 3천만 원이 전부다. 그리고 (침묵) 내가 아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침묵)

K는 부르디외가 자신의 침묵을 투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K는 불안하다. 부르디외의 ‘전방위적인 이해의 시선視線’ 안에서 K는 날마다 불안하다. **▶▶▶**



《세계의 비참》(전3권)

피에르 부르디외의 외 지음 | 김주경 옮김 | 동문선 | 각권 500쪽 내외 | 각권 값 26,000원

이 글을 쓴 김숨은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8년 《문학동네》 동계문예공모로 등단했다. 《느림에 대하여》 《중세의 시간》 《투견》 《새》 《제8전시실》 등을 발표했다.